

오세훈 시장, 서울 곳곳 편(FUN) 디자인 시찰하고 도심 속 피서지 한강공원 일대 현장방문

4일, 도심 힐링 명소에 적용된 편 디자인 확산 가능성 확인 및 피서자들이 나온 시민 불편사항 등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심 속 힐링 명소이자 피서지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곳곳의 편(FUN) 디자인 명소와 한강공원 일대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오 시장은 열린송현녹지공장과 여의도한강공원을 방문해,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휴식공간인 '소울 드롭스(Soul Drops)' 벤치에 물방울 모양의 재미를 더한 디자인적 요소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가 개발한 물방울 모양의 벤치, 소울 드롭스(Soul Drops)는 도심 속 시설물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편(FUN) 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연이어 수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여의도한강공원에 조성된 '팔호등과 쉼표등'에 주목했다. 팔호등 구간에 들어서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 접촉사고를 방지한다는 쉼표의 의미에 재미 요소를 더했다는 설명에 감탄했다. 또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나와 '구름막' 주위로 돛자리를 펼치고 휴식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도심 곳곳에 적용된 편 디자인이 힐링 명소 조성에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팔호등 및 쉼표등' : 보행자가 횡단

보도 가까이 가게 되면 쉼표등이 커져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잠깐 멈춰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자전거가 횡단 보도에 가까워지면 팔호등이 커지면서 보행자들에게 자전거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의도한강공원에 설치된 '구름막'은 3m씩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만든 그늘막으로, 구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한강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 시장은 이날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리는 「한강페스티벌_여름」 현장을 방문했다. 도심 속 피서지로 변신한 한강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 불편 사항 등은 없는지 부대 프로그램 및 시설물 등도 둘러봤다. 이어, 시원하게 한강 물살을 가르며 카누를 체험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질녘 노을로 물든 한강에서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한강킹카누물길여행 : 반포한강공원 서래나루에서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일 3회씩 운영된다. 올댓트립(althattrip) 누리집에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총 9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강썸머뮤직피크닉(8.4,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빈백에 누워 공연을 감상하는 한강 여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K-재즈' 디바 앙산, 재즈피아니스트 겸 가수인 마리 아킴,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등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명동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와 돈의동 '꼭박상담소'를 잇따라 찾아, 폭염특보 속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거제 고현시장 방문.. 시장상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4일 경남 거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 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거제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움집한 시장에서 대통령을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전어와 농어, 도다리 등 횡감 수산물을 주로 구매했다.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건강하십시오", "어르신께서는 회를 많이 드셔서인지 정정해 보이시고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서민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대통령과 악수를 청하거나 셀카를 요청했고 대통령 또한 흔쾌히 응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제가 잘 챙길게요"라고 답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전통 시장을 찾은 대통령의 방문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대통령의 거제 고현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중국 중소기업 진흥기관 경제산업 분야 소통 강화

경북도-중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교류와 동반성장 위한 협력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7일, 중국 중소기업협작발전추진센터 등 8개 기관 및 도내 중소기업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중국의 경제와 산업분야 주요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중국과 한국의 최신 시장동향에 대해 청취한 후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개척과 의료·바이오산업 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베이징 소재 중소기업

협작발전추진센터 왕웨이 주임은 "양국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양국 중소기업 간의 활발한 인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 중의약첨단기술진흥실의 허프밍 부주임은 "중국의 중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은 오랜 시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양국의 의료산업기술의 도약과 신기술의 발

전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본부와 협력해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상해와 충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경북도의 자매결연지역인 산시성 시안과 후난성 창사를 시 도내 중소기업과 중국 구매자와의 만남을 위해 나설 예정이며,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충칭과 쓰촨성 청두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중국과 한국은 상호 교역과 투자에 있어 중요하고 가까운 동반자로 양국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인적 교류까지 더 많은 교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북도와 중국의 중소기업 진흥기관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체전 경기장 공사현장 폭염 종합대책 추진

시원한 휴식공간-물 공급 등 근로자 안전 최우선...민관 안전점검도

전라남도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막바지 시설공사 현장 안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체전 경기장의 마무리 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폭염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해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관리,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작성 등이다.

특히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토록 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 근로자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토록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소방본부, 시군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축 구조, 시공 및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가벼운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시설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박종배/기자



충남도 '유관순 햇불모임' 애국·애족 정신 기린다

도, 오는 7~8일 공주한옥마을서 워크숍...유관순 정신 계승



충남도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7~8일 이틀간 공주한옥마을에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유관순 햇불모임'을 개최한다.

매년 8월 열리는 유관순 햇불모임은 '유관순햇불상' 수상자 선별을 위한 공

주 영명학교(현 영명중·고등학교)를 찾아 3.1 만세운동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 체험해 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모임은 유관순햇불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공동 연수에 참가한 후보자 모두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는 모임"이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호국·충절의 고장 충남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학생들을 지속적인 도정의 후진인으로 양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Jeonju, Jeonju, Jeonju!

경주 바다 추천 여행지

- 오류고이래해변
- 양남주상열리
- 송대말등대
- 전촌술밭해변
- 물빛 사랑길&아서해안공원
- 전촌용굴(사룡굴·단용굴)

불거리·줄길 거리 가득한 경주 청정바다에서 추억에 남는 여름휴가를!!

- | | | | | |
|-------------------|-------------------|------------|------------------|---------------------|
| 김포읍 경주 이연대 | 김포읍 전촌용굴(사룡굴·단용굴) | 김포읍 김포관광시장 | 문무대항면 코리드 청정누리공원 | 양남면 주상열리 |
| 김포읍 전촌용굴(사룡굴·단용굴) | 김포읍 나정고오모래해변 | 김포읍 문무대항면 | 전통명주 전시장 | 양남면 물빛 사랑길 & 아서해안공원 |
| 김포읍 오류관광길 | 김포읍 전촌술밭해변 | 문무대항면 | 문무대항면 | 양남면 주상열리 전망대 |
| 김포읍 송대말등대 | 김포읍 오류고이래해변 | 문무대항면 | 문무대항면 | 양남면 관성술밭해변 |
| | | 문무대항면 | 한국수목원자재 홍보관 | 양남면 읍전방 백항마을 |

경북도의회, '학교안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연령을 고려한 소방안전 대책 마련으로 학생 안전 레벨 업!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학교안전연구회'는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

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차주식 대표의원과 권광택, 박재아, 윤종호, 정한석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경과 보고와 우수 정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정비,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보강해야 할 화재 시 취약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가온알앤씨에서는 시설 안전 매뉴얼 내 전기 분야 점검 강화, 화재 대응 및 교육 매뉴얼의 연령과 학교급에 따른 세분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화재대피용 손수건 등 화재대피 용품 사용 매뉴얼 마련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도내 학생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 관련 정책의 밑그림으로 활용될 방침이다."고 밝히고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여 경상북도의 교육환경과 지역 상황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종호 의원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 등이 미진하므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화재 시 대피에 따른 압사 등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피동선 문제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한석 의원은 일반 학교도 중요하지만 특히 특수학교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매뉴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아 의원은 화재 발생 장소에 따른 분석에 대해 강당과 교실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지만 위험물이 있는 실험실이나 조리실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므로, 스프링클러 등 장소에 따른 소화용품 구비와 소방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8월내 연구를 마무리하고,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폭염 대책 종합 점검을 위한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확대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확대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폭염 대비 서울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과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교통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함께,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운 권역부대표, 김태수 권역부대표, 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중길 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해 폭염 재난 대비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8월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냉방장치 등 폭염 대비가 미흡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2부시장 산하에 위기 단계별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재난안전관리실)과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시민건강국)를 두고, 폭염대비 119 구조.구급 대응활동(소방재난본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 중 건실현장 노동자는 재난안전실, 노숙인·폭염추진 거주자·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실이 별도로 운영하는 보호대책이 보고됐다. 특히 취약 어르신을 위해, 서울시는 폭염추진 거주자 등 저소득층 냉방비를 36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760개소에 월 10~40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열대야를 대비해서는 냉방시

설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쪽방촌 방더위 대피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3층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을 지정해 총 42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저감 대책으로는, 대로변 살수차 운영(기후환경본부),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마곡나루역 등 총 13개소에 콜링로드 운영(재난안전관리실), 그늘막, 콜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4,441개소 운영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취약계층에게는 특이사항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쪽방촌 방더위 대피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3층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을 지정해 총 42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저감 대책으로는, 대로변 살수차 운영(기후환경본부),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마곡나루역 등 총 13개소에 콜링로드 운영(재난안전관리실), 그늘막, 콜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4,441개소 운영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취약계층에게는 특이사항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쪽방촌 방더위 대피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3층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을 지정해 총 42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저감 대책으로는, 대로변 살수차 운영(기후환경본부),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마곡나루역 등 총 13개소에 콜링로드 운영(재난안전관리실), 그늘막, 콜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4,441개소 운영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취약계층에게는 특이사항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쪽방촌 방더위 대피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3층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을 지정해 총 42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저감 대책으로는, 대로변 살수차 운영(기후환경본부),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마곡나루역 등 총 13개소에 콜링로드 운영(재난안전관리실), 그늘막, 콜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4,441개소 운영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소개됐다.

최광수/기자

김호진 전남도의원,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 청년 유출 늦출 수 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 등 지원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으로 개최한 '전남 여성·가족의 재간담회'에서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살맛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청년 목소리가 담긴 내실 있는 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전남의 여성·가족 분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 청년정책의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남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과 함께 '청년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전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훈련기회 부재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수도권을 선택하고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율도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이다"며 "전남형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지원, 교육 환경 강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정부, 기업, 학교 등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변혁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은 전남의 미래이며, 청년정책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년주도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부산시의회, 시민의 안전 최우선으로 쟁긴다!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출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개원 2년차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안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지만, 최근 자연재해와 여러 사건 사고 등으로 전국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8일 오전 10시,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3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시민안전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종철 의원(기장군1)을 위원장으로, 성장용 의원(사하구3)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성장용(사하구3), 배영숙(부산진구4), 김효정(북구2), 송현준(강서구2), 강달수(사하구2), 윤태환(사상구1), 서지연(비례), 이복조(사하구4), 박종울(북구4), 임말숙(해운대구2), 박종철(기장군1), 양준모(영도구2), 김창석(사상구2)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활동에 참여한다.

부산은 지역적 특성상 터널을 뚫어서 지역을 연결하고, 매립을 통해 도시를

확장해 왔던 도시발전의 역사가 있고, 신공항, 대심도, 지하 40~60m를 달리는 부산형 급행열차(BuTX)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번 폭우처럼 자연재해도 기존 상식을 초월하는 강도로 발생하고 있어 방재 매뉴얼을 완전히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슈가 됐던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스쿨존 문제도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며, 그 외에도 낙동강 식수 안전 문제, 원전 수명연장 관련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같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외면할 수 없는 현안들이 많아 이번 '시민안전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박종철 위원장은 "기후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대형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진희 의원,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 특수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월 3일(목)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황진희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대 들어서는 특히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경기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개개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경기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황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이성희 회장(부천 해림학교 교장), 안양해솔학교 김경숙 교장, 안양해솔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경기특수교육의 발전, 안양해솔학교의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개선, 노후화된 교실 내 텔레비전 교체, 전자질판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신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안양해솔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양해솔학교의 현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정 캐릭터 붕공이, EBS ‘딩동댕유치원’ 주연 맡아

경기도정 캐릭터 붕공이, EBS 협업 통해
캐릭터 고도화 및 ‘딩동댕유치원’ 출연



경기도의 도정 캐릭터 ‘붕공이’가 EBS ‘딩동댕 유치원’에 출연해 민선 8기 경기도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린다.

도는 올해 초부터 EBS와 협업해 기존 ‘붕공이’의 디자인과 스토리라인을 추가했다. 당초 몸통만 있던 붕공이의 외형에는 팔과 다리가 새로 생겼고, 열정이 앞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도민을 위해 매일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따듯하고 유쾌한 캐릭터라는 서사도 만들어졌다.

붕공이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음(ㅂ)+히음(ㅎ)’과 ‘기억(ㄱ)+히음(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붕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붕공이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인 EBS ‘딩동댕 유치원’에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8시 총 5회 출연해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민선 8기 경기도정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인다.

각각의 내용은 ▲7일 붕공이의 탄생

이야기 ▲8일 인구위기 극복 ▲9일 안전예방 핫라인 ▲10일 탄소중립 실천 ▲11일 반려동물 복지 등이다. EBS1 TV에서 오후 4시 40분, Kids 채널에서 오전 8시 30분에 다시보기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방영 후 실제 촬영에 사용했던 세트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으로 이동 설치한다. 유아동 대상 전시 등을 추진해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며 붕공이와 경기도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붕공이를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및 도민 접점 행사 등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캐릭터 브랜딩을 통해 도 브랜드 이미지와 도민친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붕공이 EBS 출연을 통해 도민들이 민선 8기 경기도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붕공이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3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호겸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의과 사무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적정 배치기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적정 식수인원 ▲합리적인 업무량 ▲지속적 인력공백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이 정립되어야 처우 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의과 관계자는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지난 6월 대규모 학교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에 이어 오는 9월 정기 인사에 맞춰 소규모 및 중규모학교 인력 충원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치기준 개선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오랜 숙원임으로 점차적으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업무개선에 필요한 해설(HACCP)의 컴퓨터 시스템화, 공기정화장치 공급, 근무인원 결원 시 채용인사서류 완화 등 시간절약, 근무환경 개선, 업무공백 최소화 등에 따른 부분도 수반되도록 함께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는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종사자들의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정윤경 의원,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해소위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기능 강화 제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현장 목소리를 경기도 아동돌봄팀에 전달하는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월 실시한 ‘경기도 아동 돌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요구된 문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정윤경 의원, 경기도청 한수경 아동돌봄팀장 및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추가 수요조사 현황과 통학 차량 지도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공백 발생 및 지역아동센터 활용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는 교사가 두 명밖에 없어, 한 명의 교사가 통학 차량 지원 업무로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한 명으로 센터 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현재 시간제 보육교사를 만일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거나, 보조교사 채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한수경 아동돌봄팀장은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1일 4시간 보조교사 지원을 6시간 보조교사 지원으로 확대한다면, 통학 버스 운영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며, “원활한 채용을 위해 6시간 보조교사 채용을 탄력적으로 시간을 나눠 다수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하였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지역의 돌봄을 책임져 왔다. 지역아동센터 야간 확대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간수당 신설을 부탁한다”라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마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 돌봄 거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운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돌봄 현장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김범상/기자

황세주 의원, ‘안성유기’ 명맥 끊길 우려...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최근 안성지역의 ‘안성유기’ 공방을 방문하는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안성유기’의 전통 계승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성유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안성맞춤의 유래를 “경기도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여 만든 것처럼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한다.”라고 제시할 정도로 안성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고서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나 안성약기(安城略記) 등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안성 유기가 공궤의 진상품이나 불상·종 등의 불교용품이나 가정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성유기’는 안성시와 경기도의 무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부족 속에 명맥이 끊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세주 의원이 최근 유기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통적인 노그릇 제작방법은 안성의 주물제작법, 평북 청주의 방짜제작법(두들겨서 만드는 방법), 전남 순천의 반방짜제작법(주물과 방짜 방식의 혼합) 3가지가 있으며, 안성유기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혼합하여 틀에다 붓고 굳힌 다음 다듬고 광을 내는 주물제작법으로 제작된다. 이와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안성유기’는 전통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성시는 주물유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후 특별한 지원이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

는 등 ‘안성유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안성시의 무형문화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성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자존심인 ‘안성유기’의 전통과 계승 발전을 위해 ‘안성유기’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김옥순 의원, 학교급식보건의과와 정담회 개최...급식비 단가 인상 요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목)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의과와 정담회를 갖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는 유치원 3,160원, 초등학교 3,580원, 중학교 4,310원, 고등학교 4,7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급식 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한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유치원·초등학교 5,410원, 중학교·고등학교 5,950원으로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전기비·수도비·가스비 등 공공요금 이따라 인상되고, 식재료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현재의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높았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옥순 의원은 “현재 책정된 학교급식경비 단가로는 급등한 식재료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고,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영양이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는 것이니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물가상승을 반영한 학교급식경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서울·인천의 지원 단가에 비해 경기도는 300~500원 정도 단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위탁급식 업체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단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태희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으로

학교가 현재의 급식비로는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학기 학교급식경비를 식품비 4%, 운영비 18% 인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학기 학교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사무관은 “위탁급식 지원 단가 또한 식품비 4% 인상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 5,640원, 중학교·고등학교 6,180원으로 인상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전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현실을 반영한 학교급식경비 단가 편성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용인경전철 '운동장역' 새 이름 '용인중앙시장역' 어때요?

용인특례시, 오는 10일부터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 명칭 변경 설문조사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이름이 바뀐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驛舍)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다.

시는 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역의 이름을 '용인중앙시장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참여자는 시가 제안한 '용인중앙시장역'에 동의하거나 또 다른 명칭을 제시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중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역의 이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 이름은 지난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당시 인근의 주요 시설

인 '용인종합운동장'과 '용인송담대학'을 반영해 정해졌다.

하지만 시가 '용인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용인송담대학'도 '용인예술과학대'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역 이름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16년에는 이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용인중앙시장 방문객이라는 점을 반영해 역 이름에 '중앙시장'을 덧붙여 현재까지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이란 역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새 이름을 결정하는 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이름의 경전철 역사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0년대 형성된 용인중앙시장은 순대골목, 떡골목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52억5000만원(국비 155억

원, 도비 31억원 포함)을 투입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책 마련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러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

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일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일 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부금 등 추가지원,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야외용 냉방기 설치로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

화성시가 버스승강장,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밀집장소에 야외용 냉방기를 설치한다.

4일 폭염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후속조치로 시가 온열질환자 피해예방을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외용 냉방기는 5일 봉담호수공원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 마을방송 및 59개의 예경보시설을 통해 논밭 작업자, 육외근로자 등의 야외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그늘막 설치 및 휴식시간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 열상 현상을 방지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782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도우미 199명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9개 읍면동 마을방송 및 59개의 예경보시설을 통해 논밭 작업자, 육외근로자 등의 야외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그늘막 설치 및 휴식시간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 열상 현상을 방지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농업 미래 산업화 준비한다...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 구축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 구상 전문가 회의 개최

고양특례시가 스마트팜 전문가를 초청해 8월 3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고양형 스마트팜'을 미래 농업 모델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대학교 남기포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남 교수는 정부의 지능형 농업 확산과 지능형 농업 생태계 현황을 소개한 후 "농업 혁신이 이뤄지려면 지역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

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원의 융·복합형 스마트팜 육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을 제안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한 시장이 주재하는 토의가 진행됐다. 토의에는 농업컨설팅 조홍석 박사,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진진 교수,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송나균 차장, (주)글로벌스마트솔루션 김송강 기술이사, (주)글로벌스마트팜연구소 이인규 대표, 코리아팜(주) 최훈 대표, (주)만나CEA 전종욱 팀장이 참석했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농업은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 푸드테크 산

업과 연계하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를 도입해 단계별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함은 물론 108만 고양시민과 수도권 주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시는 1천 개 이상의 첨단 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거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오는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이달 24일까지...시청 및 관양1·2동 등 9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안양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덕정역~청량리역, 삼성역~수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오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안양시 대상 구간은 연장 총 5.05km이며, 인덕원역에 관련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등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달 2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시청(환경정책과, 철도교통

과)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관양 1·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 범계동, 안양 7·8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덕원역 일대에 큰 변화를 불러올 GTX-C노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반딧불이 어둠 속의 빛을 찾아서' 음악회 개최



고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서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제정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매년 다양한 행사로 자살예방의 날을 알리고 관련 예방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9월 8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정애를 극복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세계 유일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 한빛예술단의 트리오, 프로젝트 더 밴드, 브라스앙상블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참가 신청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전화로 사전 접수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개소한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고위험군 위기사례관리 ▲자살유족 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예방 브랜드 '살구'를 활용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무/기자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내달 8일 '반딧불이-어둠 속의 빛을 찾아서' 앵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살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

수원시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



8월 13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개최

8월 13일 오후 4시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가 열린다.

이날 기림일 행사는 수원평화나비와 제11차 8.14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전 세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8월 14일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도 하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다.

오후 4시부터 전시·체합 등이 시작되고 오후 6시 기념식이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용담 안점순 기념사 진전(수원평화나비, 가족여성회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1주년 기념전시(정의기억연대) ▲주요 친일 인물 소개(갈릴리교회) 등이 진행된다. 제11차 8.14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종이 평화의 소녀상 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

영한다.

목표로 시작되는 기념식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수원평화나비'의 이주현 상임대표 인사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축말사, 시민문화공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제11차 8.14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는 갈릴리교회, 경기평화교육센터, 매향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인권강사단, 청년·청소년NGO안아주세요, (사)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 (사)수원YWCA로 구성됐다.

김범상/기자



하남문화재단, 문화매거진 'h: humming'(허밍) 창간

'예술을 흠모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문화매거진 'h: humming'(허밍) 창간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반년간지 문화매거진 'h: humming'을 창간했다. 문화매거진의 제호인 '허밍'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남에서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문지를 창간하며 재단의 브랜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매거진 '허밍' 1호의 특집주제는 '예술을 흠모한 기술'이다. 생성형 AI의 열풍 속에 기술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예술·기술 융복합 사례와 하남의 문화예술 소식 등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인 '태싯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낯설지만 매력적인 '오디오비주얼 아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하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Art Button_하남》을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뉴미디어 아트 사례로 소개한다.

이 밖에도 하남에 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컬 '그날들'의 주

인공 이견명 배우와 하남에 전해오는 구비설화를 연극으로 만드는 '극단 한울'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문화매거진 창간기념 시민 창작 공모전 선정작(사진작품 6점, 그림작품 6점)과 하남 곳곳을 문화의 거리로 만든 'Stage 하남(버스킹)' 등 하남의 다채롭고 문화가 넘치는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문화매거진 '허밍'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는 문화예술의 이슈를 대포 예정이다.

장소영 대표이사는 "가사는 없지만 음률을 흥얼대는 허밍처럼 문화매거진 '허밍'과 함께 문화를 통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남에서의 삶을 꿈꿔보시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매거진 '허밍' 창간을 통해 앞으로 하남과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 문화예술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세계 커피콩 축제'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시흥시는 '제1회 경기도 세계 커피콩' 축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시흥 은계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커피콩 축제를 앞두고, 축제 운영위원회의 위촉식이 지난달 28일 은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축제위원장은 김경민 은계호수상인연합회장이 추대됐고, 지역위원장은 권숙 은행동장이, 대회위원장은 박영순 커피비평가협회장이, 커피생산국교류협력위원장은 박세영 CIA 플레이버마스터 과정 교수가 위촉됐다. 한편, 이날 커피콩 축제를 위해 애써준 안광을 경기도원과 이상훈 시흥시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 축제는 부대행사, 대회,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축제에는 세계 커피농장과 연계된 대사관, 커피 산지를 다니는 커피가디언(또는 커피헌터), 국내 커피농장, 지역의 로컬카페, 커피 예술인 등 국내외 커피 관련 종사자 및 애호가들이 대거 참여해 즐거운 '커피문화 축제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행사에는 세계 커피대회의 5개 종목이 개최된다. ▲K-커피 어워드 '올해의 커피 생두' 선정 ▲세계 커피퀴즈대회 ▲세계 커피짓기대회(브루잉) ▲세계 커피테이스팅대회 ▲세계 커피로스팅대회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심사위원단 교육 및 대회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9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행사로 한국예총시흥지부, 시흥시 문화예술과가 거리공연(버스킹)에 참여해 커피를 주제로 한 음악을 선보이며 커피문화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의 축제위원장인 김경민 은계호수상인연합회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커피 행사는 커피 관련 상품 판매를 위한 소비자 판촉전이 대부분으로, 세계 커피문화가 중심이 되는 커피문화 축제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세계 커피콩 축제에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이자, 경기도와 시흥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위원장을 맡은 박영순 커피비평가협회(CCA) 회장은 "옥tober페스트 등 세계적인 축제는 모두 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마을 단위로 출발했다"며 "이번 축제로 시흥이 아시아의 커피 중심지(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홍보대사 및 위원으로 시흥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로토로'가 행사 홍보에 참여한다. 해로토로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한여름 더욱 뜨겁게 달군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폭염 안전사고 대비해 쿨존심터, 의료부스 등 늘리고, 쿨버스 12대 추가 투입도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인천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인천광역시와 주최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축제인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락의 진수를 맛봤다.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렸다.

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는 스트록스를 비롯한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비롯, '펜타 슈퍼루키'를 통해 탑(TOP) 6에 선정된 신진 아티스트들의 무대까지 총 54개 팀이 다양한 무대 공연을 선보였다.

첫날인 4일에는 아디오스 오디오, 조지, 초록볼꽃소년단, cotoba, 로맨틱펀치, 더 발룬티어스(THE VOLUNTEERS), 김윤아, 키린지(KIRINJI), 장기하, 노브레인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16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 미국의 펑크 록 밴드 엘라가든(ELLEGARDEN)이 마지막 무대에 올라 관람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5일에는 보수돌러feat.BXH, 실리캐럴, 김늑, 크랙베리, 이승윤, 검정치마(The Black Skirts), OTOBOKE BEAVER, 이디오테잎, 250 등이 무대에 올랐고, 헤드라이너로 2000년대 초반 포스트 펑크 열풍의 2000년 미국 뉴욕 출신의 세계적인 록 밴드 더 스트록스(The Strokes)가 17년 만에 다시 내한해 주말 밤 페스티벌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너드커넥션, 권진아, 모스크바서핑클럽, 더 픽스(THE FIX), 홈 슬라이스, HITSUJIBUNGAKU, 이날치, WAVE TO EARTH, 체리필터, 카더가든, 새소년, GINGER ROOT 등이 관객들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의 산증인 김창완이 결성한 김창완 밴드가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3일간의 여정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지난 4일 개막식에서는 송도달빛축제공원 상공 위로 불꽃 드론이 떠오르며 펜타포트 아이콘인 오각형을 비롯해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하는 화려한 쇼를 펼쳤다.

축제 기간 중에는 가수들의 무대 공연과 더불어, 트리크닉 존, 캠핑 존, 프리월드 존 등 곳곳에서 여러 캠페인이 열리며 락 마니아 뿐 아니라 가족 관람객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식음료매장(F&B)의 다용용기 사용,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해 제작한 공식 MD 등 페스티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즐거움과 친환경 모두를 생각한 선진적 공연 문화를 보여줬다.

행사에 앞서 인천시는 그늘막, 쿨존심터, 스프링클러, 의료부스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행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관용차량(소방차량 포함) 6대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6대 등 총 12대의 쿨버스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한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난동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 설치하는 등 입장 관람객 대상 소지품 검사를 강화했으며, 경찰도 전술팀과 폭발물 처리반(EOD), 잠강차를 배치하는 등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로, 나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대 음악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부천시 "8월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개인분 8월 16일부터·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부천시는 올해 정기본 주민세 89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이전 정기본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m²초과시 m²당 250원)

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신고 대상에게 납부서 및 안내문·신고서를 사전 발송하고,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윤용민/기자

시는 BIS 전광판, 지하철 역사내 전광판, DID 등 관내 596개소, 시청모니터, 관내버스 현수막 부착, 관내 아파트 안내문 배포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본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의정부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연 최대 30일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연간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4일 의정부에 개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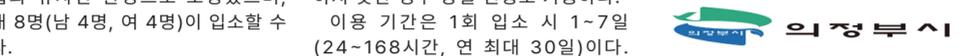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최대 8명(남 4명, 여 4명)이 입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입원·경조사·사고·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24~168시간, 연 최대 30일)이다.

하루 이용료는 1만 5천 원이며, 별도로 하루 식비는 3만 원(본인 부담 1만 5천 원, 국도비 지원 1만 5천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최만식/기자



전남도-시군,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힘 모은다

부단체장 화상회의서 바가지요금 근절·양대체전 준비 철저 다짐

전라남도와 시군이 폭염 피해 예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4일 장헌범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주재로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서 장헌범 직무대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이어 연일 폭염이 지속돼 온열질환자가 2일 현재 전국에 1천 384명, 전남에 80명이 발생했다"며 "폭염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와 무더위쉼터 가동 등 현장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더욱 지속적인 예찰과 홍보 활동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과 속박업소, 음식점 등 휴가지 바가지요

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군 현안 공유 시간을 갖고, 10월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목표를 비롯한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진행됨에 따라 전남을 찾는 4만 여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체전을 즐기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및 도 당면 현안 전달과 시군 건의·협조사항 논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선포식 통해 세계유산도시로 자리매김

지난 4일, 순천 세계유산축전 선포식 성황리에 마쳐

순천시는 지난 4일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에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의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정병희 의장, 선암사 주지 등 순천시 관계자뿐 아니라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단 등 정부 단위의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승주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식전공연과 순천 세계유산축전 이재근 추진위원장의 개식선언으로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선암사 대각암의 범종을 무대로 옮겨와 진행된 타종 세리머니는 선암사에서 순천갯벌로 이어지는 울림을 통해 자연과 문화,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다.

주제공연 또한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와 이를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연결의 의미를 잘 담아내 호평을 받았다. 이어진 마크톱과 재즈스트라의

축하공연은 아름다운 선율이 여름 밤하늘을 수놓으며 선포식의 폭격을 더욱 높였다.

이번 선포식은 세계유산축전도 순천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순천 세계유산만이 가지는 탁월한 가치를 선보임으로써 세계유산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자랑스러운 도시"라며 "8월 한 달간 순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 최초로 개최되는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은 31일까지 순천의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무대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순천 세계유산축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늦더위 날려버릴 요천 비치 페스티벌 12일 개막

워터락파티와 함께 하는 여름밤의 색다른 경험



남원시에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늦여름 무더위를 썩 날려버릴 시원한 요천 비치 페스티벌이 남원 요천 수경 물놀이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물 축제로 축제 기간 매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유명 DJ와 함께하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워터락 공연 '놀고, 먹고, 소리질러! EDM 파티'가 시작된다.

요천 수경 공간에 마련된 워터 슬라이드 풀을 배경으로 물총 전쟁, 음악과 함께 하는 요천비치 심크닉 등 역동적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상시 운영하며, 축제장 주변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타투, 네일아트 등 체험 행사로 축제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도 지역의 색을 입혀 제

대로 선보인다. 남원의 특산물인 흑돼지, 오미자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엄선하여 개발한 흑돼지 핫도그, 흑돼지 된밥, 오미자 에이드, 칠리치즈나초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물줄기로, 잊지 못할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남원 요천으로 Go!Go!

이남출/기자



완도해양경찰서장, 폭염 속 명사십리 해수욕장 현장점검 나서다

주말에도 연이은 해수욕장 점검, 이안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당부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 5일 본격적인 여름 극성수기 피서철이 다가와 관내 관광객 급증 예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난 3일 수문 해수욕장 점검에 이어, 완도군 소재 명사십리 해수욕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증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직·간접 영향으로 해수욕장 이안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연안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지며 물살이

초속 2~3m로 매우 빨라 휩쓸리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밀려나갈 수 있다.

이에 박 서장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와 더불어 안전 취약 요소, 인명구조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으며, 해수욕장 인명사고 대응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들은 기상악화 시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며 "극성수기철 해수욕장에 대한 탄력적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로 지역경제 '활짝'

여름 피서지로 큰 인기...지역경제 활성화 효자노릇 톡톡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이날 하루 동안 2천 명이 넘는 가족 단위 피서객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볐다.

방문 피서객들은 물놀이장 주변 잔디밭에 마련된 파라솔에 모여 관내 음식점에서 배달된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등을 먹어 한층 즐겁게 물놀이를 했다.

군은 물놀이장 내 취식을 위해 주변에 대형 그늘막과 6인용 파라솔 80여 개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물놀이장 내에 음식점 연락처를 게시해 물놀이장 내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평을 중국집 사장 A씨는 "물놀이장 개장 후 배달이 늘어 매출이 3배 정도 올라서 좋다"며 웃음을 지었고 함평을 B씨는 "저녁에 치킨집 2곳을 전화했으나 재료 소진으로 주문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물놀이장 개장 기간 중 평소 대비 2~3배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도 있어 물놀이장의 인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오선 관광정책실 시설운영팀장은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3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여름 인기 피서지로 덕분에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됐다"며 "물놀이장 운영을 마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관광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4일 기준 1만 8천명이 입장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수용인원을 최대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나주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높이 평가...7,000만원 인센티브

전남 나주시가 지난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이 임기 중 공시한 일자리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상이다.

지자체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자리 대상에서 나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 분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각 부분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수 성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하는 등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불법 어업 행위 근절 확고한 의지

신안군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뺑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

을 실시할 것이며,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하여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했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해경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

전남 구례군은 지난 3일 구례 지구 단위종합복구사업의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는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및 마을대표 등 5인이 위촉됐고, 토지 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이 날 본 협의회 진행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잔여지 수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

하고, 이어 잔여지 매수 청구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유영광 부군수는 보상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잔여지 매수 여부를 사업시행자(구례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와 토지 소유자가 포함된 보상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가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목포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힘쓴다

범죄 예방 CCTV 및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

목포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최근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해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예방 CCTV 및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범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범죄예방 CCTV는 33개소 공중화장실 외부에 설치됐고, 함께 설치된 로고 라이트(LED 경관 조명기구)는 불법촬영기가 설치됐음을 표시해 범죄 예방을 계도하게 된다.

불법촬영 감지장치(T가드)는 모두 29개가 설치됐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것으로,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이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

의 범죄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시는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30여 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배 목포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범죄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면서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북도 “잼버리 폭염, 도민들의 나눔으로 함께 이겨내요”

전주에 사는 한태민씨(34세) 가족, 잼버리 현장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음물 나눔 나서 귀감

“물 있어요!” “some water!” “Have a nice day” 폭염이 쏟아지는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 거리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남매와 아빠가 한국어와 영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

얼린 냉수를 받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연신 “고맙습니다”와 “Thank you”를 외친다.

가족이 타고 온 차량에는 “Free ice water for Scout” “얼음물을 드립니다. -한결, 한울, 한설-”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있었다.

냉수 나눔에 나선 이들은 전주에 사는 한태민씨(34세) 가족.

캠핑을 좋아한다는 이들 가족은 야영 행사장에서 스카우트들이 갈증을 호소

하고 있다는 소식에 직접 400병의 물을 구매하고 얼려서 현장에 나와 나눔에 나섰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한 행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과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마음에 한결물에 달려왔다는 이들 가족. 엄마 박솔아씨(37살)도 10개월된 한설이를 품에 안고 함께 해 주위에 귀감을 주었다.

이날 무료 나눔 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한태민씨는 “뉴스에서 폭염과 일사병으로 행사에 존폐를 두고 안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행사에 와보니 외국인 친구들이 문화를 즐기고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며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남출/기자



전남 진도해역, 조력발전소에 연이은 충돌·접촉, 승선원 전원 안전상태 확보(완도서)

강한 조류에도 사고선박(어선·부선 등) 대상 현장대응에 총력 기울여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늘 6일 진도대교 울돌목 인근 해상에서 진도조력발전소 외부 구조물 및 잔교에 선박들이 연이어 충돌하여 긴급출동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17시 37분 무렵 전남 진도군 울돌목 인근해상에서 A호(대형트롤, 130여톤, 승선원 11명)가 B호(대형트롤, 80여톤, 승선원 6명)를 예인하여 수리차 목포 소재 조선소로 이동 중, 강한 조류로 인해 B호 좌현 선수 부분이 진도조력발전소 외부구조물에 충돌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신고접수 후 상황대처팀을 비상소집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구조정 및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급파하고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육경, 소방 등과 함께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사고선박에 승선, 승선원의 안전상태를 우선 확보했으며, 음주측정 및 파공개소 여부

확인 등 조치했다.

하지만, B호는 배수펌프를 지속 작동했으나, 강한 조류로 인해 좌현 선수가 파손된 상태에서 침수가 지속되어 일부 분만 남긴 상태에서, 계류선박 A호에 승선하여 B호와 분리, 근접 안전관리하며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해상에 일부분 노출된 상태로 B호는 강한 조류로 인해 해상을 떠다녀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이에 완도해경은 인근해상을 안전관리하며, 미리 섭외한 예인선을 통해 진도군 소재 녹진항에 고박했고, 추후 인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6일 04시 53분 무렵 같은 해상에서 C호(예선, 150여톤, 승선원 4명)가 D호(부선, 2000여톤, 승선원 1명)를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밀리면서 D호가 진도조력발전소 잔교에 접촉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현재 C호와 D호는 인근 현장 세력의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며, 조류가 약해지는 시점에 자력

으로 이탈할 예정이다.

앞선 두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충돌·접촉으로 조력발전소 외부구조물 및 잔교 일부가 손상

됐다.

완도해경은 피해 상황과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영율/기자



화순군 ‘보이는 언어! 수어로 통하다’

화순군이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화순군은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보이는 언어, 수어 통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839명이며 전체 장애인 중 16.2%를 차지하고 있다.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화순 실현을 목표로 한 화순군은 청각·언어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2억 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통역, 내방통역, 영상 전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순군 수어통역센터는 2019년 2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하여 방문통역, 내방통역, 영상 전화통역 등 현재까지 9,430건이 넘는 수어통역 상담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언어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수어통역 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어통역 상담·교육 문의는 직접 방문하거나(화순읍 진각로 144, 300호, 3층) 영상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치매조기검진 집중 실시

60세 이상, 찾아가는 출장 검진...1차 인지저하자, 2차 검사 무료

강진군 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중증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집중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복지관, 어르신 일자리 등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지소(10개소)·보건진료소(7개소)를 통해서도 치매인지선별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8월부터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 우편을 발송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조기 발견

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1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나온 대상자는 2차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3차 감별검사는 협약 병원(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을 통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고,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1인 8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액을 지원 받는다.

치매로 진단되면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전지문 등록 ▲치매치료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조호물품 지원 ▲사레관리 ▲치매환자

센터 이용 ▲치매환자 가족 돌봄 등의 다각적인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중증화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치매 검사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육성포도 신품종 '레드클라렛' 첫 세계 진출

소비자 기호 맞춤, 로열티 감각 등 포도 품종 육성 연구 10년 성과
경북 육성 수출 1호 포도 품종 붉은 보석 같은 '레드클라렛', 베트남 첫 수출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번을 시작으로 새 수출 시장을 개척,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품종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경북 포도 산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7일 상주시 모듬면 서상중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포도 재배농가, 수출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육성 포도 품종의 첫 수출식과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재배면적 1위(전국 면적의 56%, 8,204ha)의 포도 주산지인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우수 국내 포도 신품종 육성 연구 10년의 결과이자 경북도 육성 포도의 첫 세계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룬 뜻깊은 자리이다.
특히, 경북은 포도 수출액이 2,709만 달러 전국 수출액의 88.1%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인머스켓 품종으로 국내에서 수출되는 포도 품종 중 국내 육성 포도 품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북도 육성 포도의 첫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날 1.5톤 정도의 베트남 첫 시범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16~17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레드클라렛 2차 수출이 계획되어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과피 색상, 맛, 향, 식감 등을 가진 국내 신품종 보급, 외국품종 대체 로열티 감각,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용 품종 개발 등을 목표로 다양한 우수 품종을 육성해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경북 육성 수출 1호 포도 품종인 '레드클라렛'은 겉껍질째 먹는 붉은 보석 같은 적색포도로 포도알이 크고 21.0 Brix 당도가 높으며 은은한 머스켓향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송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되어 농가에서도 관심이 높다.
또 노지에서 수확시기가 9월 상순으로 사인머스켓 품종보다 3주 빨라 추석명절 선물용으로도 가능하며, 특정시기 단일품종의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베트남, 홍콩, 중국 등에서 붉은색을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적색포도 품종인 레드클라렛이 사인머스켓과 같은 녹색 품종과는 다른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당도, 식감, 향 등의 평가를 위한 시식행사와 재배현장에서 나무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회가 개최됐으며,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번에 수출하는 레드클라렛 품종을 선두로 아삭한 식감과 향기가 좋은 골드스위트(녹황색), 수확기가 빠른 루비스위트(적색), 사과 맛이 나는 캔디클라렛(주황색), 대립과립 수출용 글로리스타(적색) 등 다양한 우수 품종들을 2025년까지 도내 500ha에 보급하고 경북 육성 포도 품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0년 전의 사인머스켓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업체 모두 만족하는 품종을 경북도에서 육성해 세계로 첫 수출하게 됐다"라며,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품종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경북 포도 산업이 발전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 운영

8.7.~8.11. 벵스코 컨벤션홀에서 운영

부산시는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와 연계해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벵스코 컨벤션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80개국 약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벵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홍보관은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다수의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참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인권선도 글로벌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부산이 유치하고자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에는 ▲ 대형 엘이디(LED) 스크린 ▲ 부산 이니셔티브 조형물 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와 주·부제, 지향가치 등을 상세히 설명해 유치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3가지 부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 그리고 대전환을 위한 부산만의 6가지 특별한 요소 등을 소개한다.
또한, 대형 엘이디(LED) 스크린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인 북한의 변화와 부산의 매력을 담은 해외 홍보영상 등을 선보이며, 부산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가치 등을 담은 조형물

은 라이트박스 형태로 디자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지향가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최 취지와 연계, '돌봄과 나눔' 부문(섹션)을 별도로 마련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중 하나인 '돌봄과 나눔의 장'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돌봄과 나눔' 부문(섹션)은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열린 2030세계박람회 유치 4차 경쟁 발표(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사일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관' 등 돌봄과 포용,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소개한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학생 서포터즈로 구성된 홍보단도 출동해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돌봄과 나눔의 장'과 '부산 이니셔티브'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별 이벤트도 개최된다. 홍보관을 찾아 유치 지지 선언 퍼포먼스를 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문구가 담긴 부채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최초 장애복지 분야 국제행사인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와 연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지향가치를 소개하고 부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특히, 부주제인 '돌봄과 나눔의 장'집중적으로 설명해 국제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대구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 손으로 직접 선정해 주세요!

현장투표(8.8.~8.18.)/시, 구·군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152개소



대구광역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를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한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24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는 170억 원이며, 사업분야는 ▲시정참여형(80억 원) ▲청년참여형(10억 원) ▲구·군참여형(40억 원) ▲읍·면·동참여형(40억 원)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43일간 공개 모집한 주민제안사업을 사업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투표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시민투표를 통해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투표는 온라인과 현장투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대구시민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대구시 산하 공무원 및 산하 출연·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시정참여형 사업과 우수사업은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은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투표할 수 있다.
현장투표는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 구·군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사업목록 확인 후 선택한 사업을 투표용지(OMR카드)에 표기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9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열리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는 ▲시정·청년참여형 사업 및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22년~'23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선정 ▲구·군참여형 및 읍·면·동참여형 사업 운영 결과보고 및 승인 등을 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 편성 전과정에 직접 참여해 대구시 예산을 손수 만들어가는 제도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유익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윤경희 군수, "군민 모두 잘살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행복한 청송을 만들겠다." 밝혀



청송군은 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고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정책 및 우수사업을 평가·시상하는 대표적 지역일자리 시상식이다.
청송군은 민선8기 "삶의 결이 다른 청송,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산소경제"를일자리

리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농업과 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성장 일자리 창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지역 공동체 복지 일자리창출 ▲열정과 도전으로 열어가 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창출 ▲청송 숲 산소향기 가득한 관광·자연의 일자리 창출 ▲삶의 여유, 여가, 그리고 힐링이 있는 친환경 주거 일자리 창출 총 5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
군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어르신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사업, 소규모사업체 성장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등을 주요 핵심 성과로,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지표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85%로 경북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청송군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비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정책을 펼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중군자 장계향선생 알기 체험활동」 개최

오도창 영양군수,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추진될 예정이니, 관내 학교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여중군자장계향선생회 영양군지회에서는 8월 1일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관내 아동·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중군자장계향선생 알기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과 교훈을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우리지역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참된 가치를 되새기기위해 마련되었다.
체험활동 일정은 8월 수비어린이집, 9월 영양어린이집 및 입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월 영양여자중학교 순으로 장계향 선생의 삶과 지혜에 대한 강의와 다도체험 및 예절체험 등이 진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알기 체험활동을 통해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추진될 예정이니, 관내 학교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폭염 대응 '취약어르신 일대일 집중 돌봄' 강화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로 폭염대비 일대일 안부전화 등 집중 돌봄 경로당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및 비회원 활용 적극 독려 공공형일자리 어르신 조기근무 및 실내근무로 폭염피해 예방 황영호 복지건강국장, "경로당 무더위 쉼터 적극 이용, 어르신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폭염대응 중대본 2단계 상황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독거 및 취약어르신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일대일 집중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도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세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 3천413명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 5만3천여 명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취약어르신 1만7천 명에게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경로당 8,26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비회원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특별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형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4만6천632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조기근무 및 실내근무로 전환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폭염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농사일 등 낮 시간대 야

외활동을 중지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적

극 이용해 어르신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즐기는 '썸머월드'

10~20일 미로탈출, 미술쇼, 볼풀장, 물놀이 등 운영... '신나는 여름' 선사

밤낮없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K-문화 테마파크 영주 선비세상이 오는 10일부터 20일 까지 열흘간 컨벤션홀에서 '선비세상 썸머월드'를 운영한다.

선비세상 썸머월드는 '뛰놀며 배우는 선비정신 - 여름아 놀자'를 주제로 ▲선비세상 미로탈출 ▲호기심 미술쇼 ▲컬러풀 월드 ▲미니 워터 스피클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선비세상의 6개 캐릭터를 찾아 떠나는 '선비세상 미로탈출'은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미로탐험, 전망대, 터널 등을 통과하며 스텝 미션을 완성하는 초대형 미로 프로그램이다.

'호기심 미술쇼'는 지난 5월 개최한 어린이선비축제에서 남녀노소 불문 큰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공휴일인 15일과 행사 기간 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다.

테마와 컨셉이 있는 대형 볼풀장

'컬러풀 월드'는 다채로운 색상과 모양의 공으로 가득 채워진다. 미니 물놀이장 '미니 워터 스피클러'는 분수 형태의 에어바운스와 여러 동물 모양의 오뚜기 풍선으로 구성했으며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간의 탈의실도 마련된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비세상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비세상 썸머월드의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은 선비세상 홈페이지와 SNS 공식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선비세상 입장료는 일반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경로 3000원이며 영주시민이나 단체의 경우 △성인 4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경로 2000원이다. 7세 미만은 무료입장이다.

윤근수/기자

(주)위즈, 안동시에 2억 원 상당 양심 양산 4천개 기증

(주)위즈, 이홍실 대표, "안동시 무더위쉼터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 되길"

(주)위즈가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양심 양산 4,000개를 안동시에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달된 양심 양산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539개소(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홍실 대표는 "장마 이후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라며, "어르신들이 뜨거워 낮 시간대 강한 햇볕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심 양산을 기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위즈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안동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기증해 준 (주)위즈측에 감사 인사 전하며, "안동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 보내도록 최선의 지원 다하겠다"고 밝혀

윤근수/기자



구미시, 미허가 파크골프장 양성화 위해 팔 걷고 나서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

구미시는 관내 파크골프장 6개소의 양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휴장했으며, 원상복구 완료 후 허가된 일부 코스(63홀)는 6월 19일 임시 개장했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날씨 등 파크골프 활동이 어려운 여름철 기간을 통해 파크골프장 양성화 절차를 추진 중인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양성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허가 파크골프장의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 면적 10,000㎡ 이상 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이며, 평가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민영미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원상복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11월 전 조기 개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불법 논란이 있었던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허가 파크골프장에 대해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한 바 있다.

김동현/기자

한울본부, 2023년 지역주민 컴퓨터교실 시행

지역주민 정보화 격차 해소로 사회적 가치 실현 이세용 본부장,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의 디지털 교육에 앞장서는 한울본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023년도 '지역주민 컴퓨터교실'을 개설한다.

한울본부가 1997년부터 시행해온 '지역주민 컴퓨터교실'은 지역 내 ICT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고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과목 선정으로 큰 호응을 얻어, 작년 방송사 채널A의 '행복한 아침, 댄다 우리동네-올진편'에 소개되기도 했다.

올해 컴퓨터교실 교육과정은 제1기 스마트폰 활용(8월~9월), 제2기 포토샵[사진편집](10월~12월)의 총 2기 과정으로 운영

되며, 강의는 매주 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울 교육훈련부 건물 1층 OA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세용 본부장은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의 디지털 교육에 앞장서는 한울본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SNS 및 유튜브 구독하고 커피쿠폰 받아주세요!~"

박현국 봉화군수, "앞으로도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이 쉽고 재밌게 군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봉화군은 공식 SNS 및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 봉화군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구독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커피 쿠폰(투썸플레이스)을 지급한다.

또한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스타벅스)을 지급한다.

유튜브 구독 이벤트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SNS 구독 이벤트는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모집개요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구독 이벤트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만든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이 쉽고 재밌게 군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세계잼버리 참가자 경북관광 유치에 총력

이 지사, “잼버리 참가자 맞이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라” 지시 경북도 9개 관광프로그램 활용한 K-문화관광 집중 마케팅



경북도는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 기숙사 등을 활용한 숙소 마련과 세계문화유산 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 관광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회의를 열고 잼버리에 참가한 154개국 43,0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9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동안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맞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먼저 벽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천년 신라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역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 속의 한국, 로열웨이로 유명한 안동지역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도산서원 등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관광프로그램도 구성했다.

또 포항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와 포스코역사박물관, 포항크루즈 체험으로 구성된 동해안 관광 및 산업견학과

문경새재도립공원, 에코월드, 철로자전거, 자전거박물관 등 문경과 상주의 다이나믹 체험관광을 비롯해 백두산호랑이, 자생식물을 탐방할 수 있는 봉화 백두대간 생태체험 등 총 9개 관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경주시와 안동시는 경북의 정체성과 경북만의 매력적인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주는 블루원리조트 내 워터파크 시설 무료 이용과 플라잉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특별프로그램으로 신라 달빛기행을 진행한다.

안동은 문화공연체험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 탈놀이단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 K-컬처의 원류인 경상북도의 세계문화유산과 한류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전 세계 외래 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북관광 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천시,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총력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물 섭취, 폭염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대비 수칙 준수토록 현장 위주의 예찰에 총력 경주” 당부

김천시는 폭염경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일 시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추진 상황 2차 점검 회의를 하고,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내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기존 3개 반에서 6개 반(상하관리반, 취약계층지원반, 의료지원반, 시설관리반, 응급복구반, 읍면동 현장대응반)으로 강화하여 평일·휴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특히, 논밭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안전을 위해 폭염 시민행

동 요령을 마을 앰프 및 거리 방송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을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의 협조 속에 논밭 작업자제,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온열질환 대비 수칙인 충분한 물 섭취와 폭염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 그늘에서의 휴식을 준수토록 현장 위주의 예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울진군, 죽변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힐링의 시간! 인문학 예술 테라피”

인문학 예술 테라피 프로그램

일시: 2023년 8월 31일 - 10월 5일 (매주 목, 화, 목 7시)

장소: 울진군 죽변면도서관

강사: 최인호 (소설가/인문학 저술가/평론가)

신청: 8월 31일(목) - 25일(금) 신청방법: 전화 및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일정

- 1회차: 8월 31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 2회차: 9월 7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 3회차: 9월 14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 4회차: 9월 21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 5회차: 9월 28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 6회차: 10월 5일 19:00-21:00 (인문학) 시 시선(지은, 채 혁명) 인문학 힐링하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 경북도문화체육관광국 | 죽변면도서관 | 054-782-1874

울진군은 오는 8월 31일부터 죽변면도서관에서 ‘인문학 예술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을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금강송 숲길 탐방과 후속 모임 등 참가자들의 소통을 이끄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단편적인 강연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문학 예술 테라피’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북면 흥부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탐방과 후속 모임은 별도 일정으로 운영

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울진군통합도서관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lib.uljin.go.kr) 또는 죽변면도서관(054-782-1874)에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여,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Marinepia

친환경 울진

숨쉬는 땅 울진

여유인 바다

‘온 열정을 다해 굴러라! 스트라이크!’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강영석 상주시장,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숨쉬는 상주시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 말해

상주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5일간, 상주시 월드컵볼링장에서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가 열린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볼링협회와 주최하고 경북볼링협회, 상주시볼링협회 주관으로 전국 초등부, 중등부, 남자대학부 선수 300여 명이 참여해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경기는 8월 3일까지는 초등부, 여자중학부, 7일까지는 남자중학부, 14일까지는 남자대학부 선수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개인전, 2인조전, 4인조전, 개인종합 경기를 거쳐 우승을 향한 승부를 펼치게 된다.

한편 남부 고등부와 여자대학부 경기는 안동시에서 진행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숨쉬는 우리 상주시를 이곳저곳 돌아보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볼링 대한 관심 제고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태풍 ‘카눈’ 대비 긴급대책 회의 진행

김광열 영덕군수, 저지대 주민 대피 및 산사태 사전 점검 지시

영덕군은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일경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일, 김광열 영덕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영덕군은 태풍·호우 대비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관내 재해 취약 지구를 미리 수시 점검하고 담당자와 안전요원 지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고지 배수터널 등 관내 재해 예방시설 14개소에 대한 긴급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양수기 23대를 침수 우려 지역에 배치키로 했다.

향후 영덕군은 태풍의 경로와 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근무를 실시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군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라며 저지대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묘곡저수지 저수율 70% 이하 유지 ▲관내 소류지 화전지 등 30~50% 저수율 조절 ▲토목 및 하천 도로, 하천 시설물 사전 점검 ▲낙석위험도로 순찰 강화 및 긴급 복구대책 마련 ▲도로 배수로 이물질

사전 제거 ▲해안 저지대 월파 대비 대형매대 사전 공급·설치 ▲관내 해수욕장 시설물 신속 철거 ▲강구항 수위 상승 대비 및 어선 대피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잼버리 대원 맞이하자” 경주시, 숙박에서 체험관광까지 전방위 지원

세계 잼버리 대원 경주 유치 총력, 숙소는 물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준비 ‘박차’ 주낙영 시장 “잼버리 대원 유치, ‘2025 APEC 경주’ 준비된 모습 전 세계 알려”

경주시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방면에 대비, 숙소 마련과 체험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7일 오전,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세계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

이날 주 시장은 잼버리 대원들이 묵을 숙소와 아영장소 제공은 물론 세계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대회가 운영상에 차질을 빚자 지난 5일, 경주를 비롯한 서울, 평창, 부산 등을 지목하며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 먼저 지난 주말 경주 화랑마을, 불국사 숙박단지, 보문관광단지 등 지역 주요 숙박자산을 점검하며 잼버리 참가자 유치에 나섰다.

이어 경주의 랜드마크인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월지, 대원릉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주를 대표하는 놀이시설인 블루원리조트 내 워터파크와 경주월드 내 캐리피니아비치, 경주엑스포대공원 플라잉 공연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경주만의 특별한 손님맞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잼버리 방문 전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타용/기자



부산시,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 직접 참여

부산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비·대응 태세 확립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간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지난해에는 시내 8개 자치구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시내 8개 자치구·군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주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ITX)으로 동래구보건소 주관으로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동래구청소련관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된다.

소규모 훈련은 보호복 착용의 등 보건인력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으로, 연제구(8.17.), 남구(8.30.), 금정구(9.7.), 부산진구(9.13.), 수영구(9.14.), 해운대구(9.20.), 기장군(9.26.)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된다.

시는 모의훈련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각 보건소에 지원해 초동대응요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레벨 에이(Level A) 보호복과 공기호흡기 36점을, 올해에는 레벨

에이(Level A) 골전도 통신시스템, 디지털 휴대용무전기, 레벨 씨(Level C) 보호복 세트 69점을 지원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초동조치팀과 합동조사팀이 생물테러 의심사례에 더욱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챙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해외 발생 의심우편물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봉하지 않기,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등 대국민 행동대응 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우편물을 발견하면 12나 119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의심우편물 발견 시 대국민 행동대응 요령

- 의심우편물 발견 시**
- 개봉 또는 의심우편물 이동하지 않기
-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 의심우편물 주변 사람을 대피시키고 현장 통제
- 의심우편물 개봉 시**
-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 차단
- 휴지통 반스 등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뚜껑 닫기 (안고 있던 옷이나 담요 등 덮어 확산 지연)
- 장문류 담고 현장물 밀폐·시각 후 우편물 개봉장에서 즉시 이동 (방생방정차, 공기청정기 고가동)
- 이후, 기관장 상급관리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
- 의심 물질이 무엇일 경우 신속히 오장강, 인경 등 붓고
- 은폐는 절대 불가 (물품은 비닐백에 담아 보관)
-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 금지

김영록 지사, 폭염 피해 최소화 등 합평서 잇단 현장 행보

육계 농장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적기 공급 등 총력 대응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가축 관리와 해안일 주도로 개설, 특수화재 진압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합평지역 현장을 잇따라 찾아가 관계자를 위로하며 피해 최소화와 안전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합평 대동면의 육계 사육농장인 제이토리농장을 방문, 가축관리 상황과 대책을 살폈다. 제이토리농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정부 인증을 받았다. 안개 분무 시스템,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추는 환풍기, 안개 분무, 쿨링패드,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비를 총 동원해야 한다"며 "가축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김영록 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2년까지 5년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5개 사업에 616억 원을 지원한 결과 폐사 가축이 2018년 97만 1천 마리에서, 2020년 1만 8천 마리, 2022년 7만 5천 마리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142억 원을 투입한 결과, 4일 현재까지 닭 15농가 1만 9천150마리, 오리 4농가 762마리, 돼지 22농가 255마리 등 총 41농가 2만 167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폭염 속 합평만 해안일주도로 개설 현장의 안전을 살피고, 서남권 발전을 위한 지방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합평만 해안 일주도로는 총 20.5km

로 영광·합평을 연결한다. 영광군이 0.5km, 합평군이 20.0km 구간이다. 전체 사업비는 814억 원이다.

합평만을 연결하는 지방도가 최종 연결되면 서남해안권 주요 명소를 이어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합평군과 협의해 합평만 해안일주도로를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서남권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남 서남권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서 폭염 속 특수화재 진압 중인 합평 에이디알주식회사에 들러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폭발 우려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알루미늄 제조공장인 에이디알주식회사에서는 이날 오전 4시 54분께 공장의 야적장에 적재된 알루미늄 자체 화재가 발생했다. 알루미늄 소재 특수화재로 팽창질식 등 특수 진압소재를 활용해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진화에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인력 96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 긴급 소방 진화에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맹벌 더위에 고생하는 소방대원을 격려하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특수화재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진화하라"며 "앞으로는 위험물질은 분리해 적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중배/기자

도봉구, 마약류취급업소 대상 기획점검 실시

감시원 2인 1조 점검반 통한 현장점검 방식

도봉구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앞서 실시한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대상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및 기타 특별점검이 필요한 업소를 파악, 효율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지난 5월 '도봉구 의약품 등 유통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개별

업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자율점검토록 했다.

자율점검 실시 결과 2023년 자율점검률은 99.1%이며 연도별 자율점검률을 비교했을 때 2021년 99%, 2022년 98.5%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구 관계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의 기존 자율점검표 제출 방식을 폐지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이번 자율점검률 상승에 기여했

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기획점검은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및 점검 불성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점검 대상업소에 대한 선별·집중 감시로 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대상업소는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위험도 기반 평가결과에 따른 2023년 점검대상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의료기기수리업소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추정 업소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점검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감시원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기획점검으로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 지역 내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류 등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제천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실시

제천시는 하절기 어린이집 식중독 및 급식·위생 관련 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7월 두달간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50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차량구조장치, 비상벨 작동 등 안전상태를 점검했고, 문제가 지적된 5대의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미설치 어린이집 2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급식관련 시설·설비 관리, 식단표관리, 식재료관리 등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관리, 화재사고예방, 신속대피가능여부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 봉화군 | 봉화

강원도 동물등록자진신고, 선택아닌 필수

'23년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 의무화로, 이 기간 동안 보호자가 동물 등록 및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된 집중단속 시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해

당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처리되며,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舊)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등록제 필요성 인식과 유기, 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꼭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세무조사 유예 신청 서두르세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일환으로 11일까지...특별재난지역 기업 등 대상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위치한 기업 등에 대한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 질병·중상해·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이다.

유예는 직권 및 기업 신청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기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00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을 올해 방침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2023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이것만 알아도' 책자를 발간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배포했다.

'이것만 알아도' 책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QR(QR)코드도 제작, 이달 3만 4000여 법인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에 신고, 4780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충남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도는 올해 특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대상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밖에 지난달 27일 충남 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 참석해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9일 기업 담당자 정기 교육 시에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것만 알아도' 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루세원 발굴 등 조세정의 실현을 넘어,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청남대, 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쏠리다!

한파, 역대급 장마 등 악재 불구하고 관람객수도 50.2% 증가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남대 홈페이지 접속 수는 총 1,036,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0,563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223%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전제로 봐도 올해 아직 5개월이 남은 상황에 이미 지난해 총 접속 수 767,762건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라 더욱 의미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고무적인 이유는 그동안 청남대 관람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홈페이지를 통한 주차 예약제가 지난 3월부터 전면 폐지되어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폭발적으로 접속 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청남대에 관심을 갖고 관람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초 한파와 미세먼지, 유래 없는 장맛비 등 관광객 방문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람객 수는 357,4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8,068명 대비 50.2%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청남대는 올해 운영방안과 시설확충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민선8기 충북도의 핵심 추진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선도적인 사업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청남대는 개방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 예약제 폐지를 시작으로 주차공간을 대폭 늘리는 등 운영방안 혁신을 수순대에 올렸다.

또한 성수기(4~6월, 10~11월)에는 월요일 휴관 없이 상시개관, 축제기간 중 토요일에는 야간개장도 실시했고, 충북도민에게만 적용되던 도민할인을 대전, 충남, 세종까지 확대했으며, 임신부와 동반 1인 무료입장 혜택, 문의면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무료입장 및 주변 상권 이용객들에게 입장료 할인 등 관광객 편의를 대폭 높였다.

무엇보다 청남대 본관 침실을 개방해 1박 2일 동안 청남대를 체험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체류형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것과 호수과 나무 등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웨딩마치를 울릴 수 있는 야외웨딩 촬영화 등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청남대는 문화예술 전시 프로그램 힘써 모네타&루노아리 전시회와 빈센트 반 고흐 등 특별전시도 진행해 총 3만 7천여 명이 전시회를 다녀가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을 '영빈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각종 컨벤션사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메뉴' 공모에 충북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선 청남대 내 교육·체험·숙박이 가능한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의 명소가 될 물명실터 조성도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8월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분관 2층 객실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영빈관 시설도 대폭 개선해 코리아 유니크메뉴와 연계한 MICE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김중기 시장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요람으로서 청남대의 본격적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방 20주년을 맞이한 청남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다채로운 교육·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무더위 떨치는 음악의 향연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올여름 눈과 귀가 호강하는 고품격 음악 공연으로 무더위를 날려줄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이하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은 오는 11~15일까지 5일 동안 신정호 호수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낮에는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물놀이장으로 더위를 떨쳐내고, 밤에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락페스티벌',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성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별빛음악제', 15일 광복절을 기념 음악회로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가 열리는 등 축제 기간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어 장르별 마니아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상급 라인업, '열정'부터 '힐링'까지 감동의 무대

이번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을 일일별로 보면 11~13일까지 락페스티벌이, 14일에는 별빛음악제, 15일에는 '영웅' 갈라콘서트가 각각 열린다.

3일간의 락페스티벌에는 △11일 레인보우드, 버비핀스, 헤이맨, 디에이디, 슈퍼비, 육중완밴드, 노브르 △12일 키키, 모든, 몽돌, 구만, 디어클라우드, 홀리밴, 몽니 △13일 도파에, 반디, 시소, 화노, 신현희, 단디, 크라이딩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13일만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별빛음악제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내 3대 일류서니스트로 꼽히는 최형배의 마술 공연 △클래식·대중음악·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아티스트들이 모인 국내 최초 '일렉톤 밴드' 한윤미 밴드의 게임음악 ost 연주 △e스포츠 롤(LOL) 프로그래머이자 아산시 홍보대사인 디사이더, 테크니스트 △음악으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최근 방송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뮤지컬 배우 임태경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15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최형배 마술의 매직콘서트와 △뮤지컬 라운지에 이어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 오리엔탈(양준모, 린지, 김늘봄, 최송선, 김도현, 윤진솔, 임선애)이 갈라콘서트를 통해 웅장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축제 5일 동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한다. 12월·13일·15일(오후 1시~3시)에는 '이순신 물총대첩' 퍼포먼스가 열린다. 워터슬라이드는 소정의 입장료(성인 4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3000원)가 징수되며, 아산시 관내 점포 이용 영수증(5만 원, 영수기간 7~15일) 제출 시 1인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물총대첩은 선착순 200명에게 대어하는 물총 외에는 개인 지참해야 한다.

축제 기간 아산외식업조합에서 푸드존을 운영할 계획이며, 가족 단위 신정호 피크닉장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한여름 밤 불거리, 칠거리, 먹거리 모두를 만끽할 수 있는 가족 모두의 피서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경기 시장은 "각각 내놓아도 손색없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최고의 라인업이 주축같은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축제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물놀이를 즐길 기회가 될 것이며, 이후에도 '외국인 K-트로트 가요제', 'JAZZ 페스티벌 with 자라섬'도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 여러분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용하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아산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대표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 역대 최고 매출실적 달성!

2022년 6월 말 대비 매출액 83.7% 이상 증가

원주시의 중소기업제품 대표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원주몰은 6월 말 기준으로 28억 3천만 원의 총매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7%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이는 2022년 연간 총매출액 25억 4천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2013년 원주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022년 대비 33% 증가한 40개의 신규 기업 입점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덕분이다.

원주시는 이 여세를 몰아 라이브커머스, 홈페이지 개편과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원주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일 계획

이다.

원주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태훈 부시장은 "원주 중소기업들의 역량과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원주 특화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을 운영하고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제8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매력적인 공연으로 태백시를 즐겁게 하다



태백시는 제8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부제: 2023 태백 선선 페스티벌)가 매일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선한 태백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7월 31일 낮부터 진행된 소리토리 화가공방창단 및 온세미로의 공연이 황지연 또 피아노무대 앞에서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평상에 앉아 공연을 즐겼다.

이어서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에는 한강의 수계인 경기 김포시의 수아트 컴퍼니의 팝페라 공연과 낙동강의 수계인 대구광역시 남구 화애리의 퓨전국악 공연

황지연 또 버스킹 및 태백 선선쇼는 8월 4일(금)까지 이어지며,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는 축제의 마지막 날인 8월 6일(일)까지 이어지므로 매일 색다른 공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는 한강과 낙동강, 우호 교류 도시를 대표하는 공연팀들이 황지연 또 무대에 모여 팝페라, 퓨전국악,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며, 태백 선선쇼는 다양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문공연팀들의 클래식, 댄스, 버스킹 등의 공연을 매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 플레이는 행사 마지막날인 8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오광대 전통공연, 비보잉, 락밴드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등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볼 수 있는 창작 댄스 대회 '수계도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과 결선이 있으며, 5일 토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물놀이 타난장 파티가, 저녁 7시부터는 EDM 음악과 즐기는 감각 물놀이 타난장 EDM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이승근/기자

'다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천안' 로고 제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 이미지 구축

천안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상징하는 로고 제작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다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천안'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을 기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로고를 제작했다.

로고는 아이들의 즐거움과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과 웃는 얼굴, 도시의 아이콘 요소를 담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로고 시안 4개를 먼저 후 시 청 로비와 아동기관에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1번 시안으로 로고를 선정했다. 1번 시안

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안을 작업한 뒤 세부적인 디자인 조율을 만들어져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시는 천안시의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대변할 선정된 로고를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 '다함께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로고 제작을 통해 천안시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지속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2023. 8. 11(수) ~ 15(일) 신정호 호수공원

8. 11 ~ 15	8. 14 ~ 15	8. 15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11:00 ~ 13:00	11:00 ~ 13:00	11:00 ~ 13:00

공연 안내

8. 11 ~ 15: 로도르 공연 10:00 ~ 11:00

8. 11 ~ 15: 로도르 공연 10:00 ~ 11:00

8. 11 ~ 15: 로도르 공연 10:00 ~ 11:00

강릉시 '세계 선도 천연물 바이오 허브 도시'로 성큼

천연물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으로 국가산업단지·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당겨 '세계를 선도하는 천연물 바이오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빈틈없는 전략 추진에 나선다.

KIST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 등 강릉시가 보유한 최대 강점인 천연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이달 내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 플랫폼 구축 ▲각종 정책 및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공간·제도 기반 조성 에 따른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천연 식품첨가물 소재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연·플랫폼 구축, 천연물바이오 원

료 재배단지 및 산업화 R&D센터 등을 조성하여 소재 개발에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지정 및 조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핵심 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신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적기 지정 및 조성을 이끌어 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진행될 기회발전

특구 지정 공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천연물 바이오를 강릉시만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미

래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하동 11시 45분 김밥, 영국에 행복을 전한다

하동군, '복만사' 11시 45분 김밥 영국 수출 선적식... 영국 H-MART 전 지점 입점



정청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생산된 하동 쌀에 이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대표 조은우·이하 복만사)'의 냉동김밥이 영국시장에 진출했다.

하동군은 2일 하동을 섬진강대로에 있는 복만사에서 하승철 군수, 조은우 대표, 지역농협조합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산 냉동김밥의 영국 수출 선적식을 했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냉동김밥은 10t 1만 5000달러어치로 국내 최대 식품수출업체 최창물산(주)이 직접 운영하는 영국

H-MART에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영국으로 수출한 섬진강 쌀에 이어 하동산 냉동김밥의 영국시장 진출로 하동 농산물이 유럽시장 개척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수출업체의 유럽진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김밥을 만든 '복만사'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민취약계층 고용비율 60%를 넘기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또한 '행복을 전달한다'는 비전을 담은 전 세계 각국에 냉동김밥을 수출해 한국식품 'K-김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복만사'의 냉동김밥은 직접 만들어 먹기 어려운 김밥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밀키트화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2022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기도 했다.

최광용/기자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9개 작품 선정... 9~10월 도시건축전시관 전시

최우수 2점 · 우수 6점 등 총 9개 작품 선정, 9~10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전시

올해 열린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에 '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강서구 마곡동)'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9~10월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중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2점·우수상 6점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하고, 9월 1일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총 106점(공공 26, 민간 80)의 수준 높은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7월 14일 서류심사에서 수상예정작 9점을 선정, 7월 25일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 선정된 ▲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실제: 김태집(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안도 다다오(Tadao Ando Architect&Associates)]은 강서구 마곡지구 R&D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로 계획된 건축물로, 공공성 높은 민간 문화시설로서 기획·프로그램·시공도 측면에서 완성도가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 가로와 서울식물원 광장, 지하철역사 등 주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종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음

향의 가변성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자 건축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대상 수상 영광을 안게 됐다.

최우수상은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노원구청 로비 복합문화공간 '노원책상'[실제: 조은희(구보건축사사무소), 홍지학(충남대학교)]이, 민간 부문에서는 ▲컴포트서울[실제: 문주호(경계없는작업실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노원구청 로비 리모델링을 통해 탄생한 복합문화공간 '노원책상(노원구 노해로 437)'은 방문자 접근성과 행위를 최우선하여 조성됐다. 딱딱하고 재미없던 구청 로비가 거실같이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길과 소월길 사이 15미터 높이차를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로 연결하여 만든 '컴포트서울(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45)'은 높낮이 차이를 계단식 건축물로 연결한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컴포트서울'은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설 주변 건축물에 지향점을 제시하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총 6점(공공 4점, 민간 2

점)이 선정됐다. 공공 부문은 ▲산악문화체육센터(마포구 상암동)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안국동) ▲Ecological Matrix:생명의 그물(성동구 성수동) ▲BUNKER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동작구 대방동)이, 민간 부문에는 ▲생각공장(영등포구 당산동) ▲엑셀마곡연구소(강서구 마곡동)가 선정됐다.

9개 수상예정작을 대상으로 이뤄진 '시민 투표(엠보팅)'에서는 ▲산악문화체육센터(2,124표)와 ▲엑셀마곡연구소(2,048표)가 선정됐다. 시는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두 작품에 전문가 심사로 수상한 상과는 별개로 '시민공감특별상'을 시상한다.

서울시 설문·투표시스템인 '엠보팅'을 통해 진행된 시민공감특별상 투표에는 총 6,964명이 참여(1인 당 최대 3개 작품 투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작품이 선정됐다.

올해 심사는 심사위원장 우경국 대표(예공아트스페이스)를 비롯해 명망 있는 건축전문가 7인(강병근 건축가(서울시 총괄건축가),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김은미 대표(이엠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김정임 대표(서로아키텍츠), 박순규 과장(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이성관 대표(건축사사무

소 함울건축), 이소정 대표(건축사사무소 OBBA)]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은 9월 1일 '2023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수상작이 전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여준 건축물을 발굴,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9.1(금)부터 건축상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각종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서울건축문화제'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환급' 받아요

도, 3-6일 수산물 소비활성화 '온누리 환급 행사' 진행

충남도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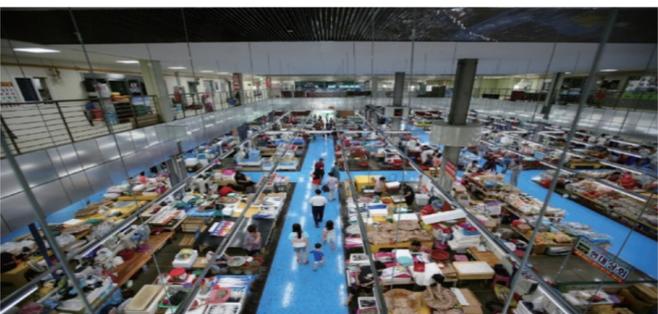
행사는 서천특화시장과 태안 안면도수산시장 2곳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이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행사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소비 촉진 행사 뿐만 아니라 △수산물 안전성 홍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해수·수산물·저질 상시 모니터링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gun #육지안의섬 #뽕뽕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g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g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g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항상

곤충도시 Clean 예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D-100일 학습 전략'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D-100일 학습 전략'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202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D-100일(8. 8.)을 맞이해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전략 자료를 제작해 도내 각 고등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소위킬러 문항이슈 등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도내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했다.

'수능 D-100 학습전략'은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산하 경복진학지원센터에서 제작해 보급했으며 ▲일반적 학습전략 ▲영역별 학습전략 ▲수험생을 위한 조언으로 구성했다.

이울러 이번에 배포한 학습전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카드 뉴스는 경북교육청 공식 SNS 계정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학습 전략

▲국어 영역

수능 100일 전, 내신에서 수능 국어로 전환이 필요하다. 온 신경을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6월 모평을 철저히 분석 학습전략을 세운다. 새로운 경향은 없었는지 감지되는 변화나 경향

성을 자신의 학습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6월 모평을 치른 이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돌출하면서, 9월 모평이 보다 정확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권은 선택과목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할 때다. 선택형 수능에선 공통과목에서 난도 높은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 선택과목은 그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추세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대적 학습량이 적고 덜 어려운 선택과목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 학습의 자신감을 확보하고 실전에서 공통과목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위권은 선택과목 공부보다는 공통과목 중에서도 독서 추론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집과 연계 교재에서 '보기'를 달고 있는 사례 추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 봉투형 모의고사 같은 신규 문제들도 되도록 많이 풀어서 추론 문제 해결능력을 극대화할 시기가.

문학에서의 연계 출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비연계로 출제되는 낯선 문학작품도 그 갈래가 지난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 내는 힘과 '문제 유형을

깨닫는 힘'을 기르면 정복할 수 있으므로 포기 해선 안 된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라면,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반드시 챙겨 정답률을 높여가면서 문제 풀이 시간을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학 영역

수험생들은 9월 모평까지 자신의 학습 진도는 어떠한지 체크 한다. 물론 수험생마다 학습 진도는 차이가 있다. 시험 범위 과목을 다 점검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부족 부분을 채우는 경우, 실전 연습 단계에 있는 경우 등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이 무엇이고 이 학습을 언제쯤 끝낼 것인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과별로 시험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학·수학II의 출제 유형 등이 무엇이고, 여기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밀도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선택과목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개념과 유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단계가 지났다면 출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연습으로 실력을 탄탄하게 만든다.

기출문제는 최근 3개년의 단원별 출제 유형 문제들은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다. 9월 모

평 전까지는 각 교과 개념과 출제 유형들은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한다. 기출문제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시험의 요령을 익힐 수 있게 해주는 자료다. 시험지로 출력해서 연습하기보다는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문제들을 연계 교재 또는 관련 문제집을 통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기출문제 등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는 가급적 노트로 만들고,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학습하게 된다면 추후 비슷한 유형의 문항의 답률을 낮추는 것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위 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고난도 문제나 신유형 문제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EBS 교재를 통하여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항을 풀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공식이나 개념을 파악함과 동시에 풀이 과정에서 활용된 문제풀이 방법을 집중하도록 하자.

▲영어 영역

영어는 난이도에 따라 원점수 변화가 큰 과목으로 '절대평가=쉬운 영어'라는 오해는 금물이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수능 당일 낭패를 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현재 등급에서 2~3

등급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유형부터 정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8월에는 듣기, 단어, 문장 해석을 위한 구문 독해 등 수능 개념을 다진다. 9월에는 빈칸, 글의 순서 등 고난도 유형에 집중하기보다 필자의 주제,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등 대의 파악 유형을 집중 학습한다. 10월에는 주 2회 설프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최고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만 집중해야 한다.

3~4등급 학생들은 실전 연습과 더불어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등급대의 학생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는 이해하고 기본 어휘는 알고 있지만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해석이 뒤죽박죽 얽히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단서에서 근거해 정답을 찾기보다는 아는 단어를 통해 부정확하게 유추하며 감에 의존해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시험 중 시간 조절에 자주 실패하고 점수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은 이유다. 8월에는 주제, 제목, 함축의 미,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약문 등 주요 유형을 연습하도록 한다. 9월은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10월에는 주 3회 설프 모의고사를 실시해 본다.

1~2등급 학생들은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탄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지만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고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9월 모평 이후 급격히 점수가 휘청거릴 우려도 있다.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 8월에는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9월에는 빈칸 3점, 글의 순서 3점 등 고난도 문항 유형을 집중 연습한다.

◆수험생을 위한 조언

심리학 수강 경험 학생들은 '예비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두뇌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순간 입력하면, 그중 대다수 잊어버린다. 이는 우리가 바보이기에 그런게 아니라, 두뇌가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망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정보입력, 즉 '복습'은 우리 뇌가 정보를 망각하는 비율을 낮추어준다. 물론 복습은 그렇게 재미있고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곧 있을 수능을 위해 남은 시간을 복습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들 수도 있다. 공부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하던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공부해서 수능 점수 1점 올린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자.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하루에 1점이면 100점이 올라간다.

내년 대학의 캠퍼스를 누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 번 더 펜을 들자!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제6호 태풍 '카눈'복상 대비 상황 판단 회의 개최

학생안전, 학사운영 조정, 교육시설물 안전대책 강구

임종식 교육감, "특히 학생들 등·하교 안전 확보에 최선 다해 줄 것" 당부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월) 오전 9시, 교육감 주재로 본청 국·과장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을 바꿔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의 피해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내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사 운

영 조정 ▲강풍·폭우 대비 시설물 관리 ▲방학 중 돌봄 운영 안전대책 강구 ▲각종 연수 취소 및 일정 조정 ▲지방공무원 복무 철저 ▲공사 중인 시설물의 안전조치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지원 등이다.

또한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피해 방지

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7일(월)부터 교육안전과를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태풍 경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경상북도 재난상황실과 지자체와 연계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복구 상황 점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2차 피해 방지, 방과후학교·계절제치유원에 대한 안전점검, 공무원 휴가 일정 조정 등 태풍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제적으로 태풍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피해 방지와 교육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위험 요

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지시하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수능 D-100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1.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예습, 복습하자.
2. 수시 지원과 수능 준비를 균형 있게 하자.
3. 취약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가는 학습하자.
4. 합격의 순간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5. 중상위권은 고난도 중심의 문제풀이 학습을 하자.
6. 중하위권은 교과서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7. 잠도 휴식도 학습도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8. 각종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자.
9. 일주일 단위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자.
10.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



전남교육청, 전남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 성료

노래·웹툰·포어 등 총 63점 접수...26점 수상작 선정

전라남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전남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교육가족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더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노래·웹툰·포어 캘리그라피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다.

그 결과 △ 노래 8점 △ 웹툰 9점 △ 포어 캘리그라피 46점이 접수됐으며, 도교육청은 홍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26점(최우수상 6점, 우수상 10점, 장려

상 1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청렴 콘텐츠 공모전 입상 작품들을 누리집에 탑재해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송출, 우수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청렴 인식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재술 감사관은 "이번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수준 높고 참신한 작품이 다수 응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청렴 콘텐츠 공모를 통해 교육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영 현장 점검

촉촉한 안전망 지원으로 안전한 초·중·고등학교 운영

김유희 교육장,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초·중·고등학교 되도록" 노력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중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27일(목)부터 4일(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운영 현장점검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중·고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 안전 시설,

돌봄 교육활동안전, 간식 및 급식 안전, 화재 예방, 하절기 감염병 예방관리, 귀가 안전 등 초·중·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여름방학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초·중·고등학교 사용자 매뉴얼을 돌봄전담사에게

안내하여 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여 2학기 초·중·고등학교 업무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현장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유희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촉촉한 초



등 돌봄교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초·중·고등학교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해외 나갈 필요 없어요...영등포구, 다양해진 원어민 화상영어

초등학생~성인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대폭 개선...업체와 수업 선택폭 넓혀

영등포구가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을 대폭 개선해 구민들에게 보다 넓은 학습 선택폭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학생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문교육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렴한 수강료로 '원어민 화상영어'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개인별 진단 테스트를 거친 후, 수강생의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화면을 통해 강사와 얼굴을 마주 보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표현과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수업 후에는 자동으로 녹취된 파일을 들으며 복습도 할 수 있다.

그간 '원어민 화상영어'는 모집 첫날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다양한 학습 선택폭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체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한다. 또한 1:1 개별 수업뿐만 아니라 토론이 가능한 1:3, 1:4 그룹 수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출석률 100%를 달성하고 학습 단계를 승급한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1만8천 원을 우선 지원한다.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성인이라면 누구나 '영등포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된 수강료로 '원어민 화상영어'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원어민 화상영어'가 사교육비를 경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벌어진 교육 격차를 좁혀 글로벌 인재 양성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원어민 화상 영어가 아이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는 어학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명품 학습도시 영등포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울대에서 진로교육 받아볼까? 금천구, '별 따는 캠퍼스' 진행

서울대 재학생과 교수진 만나 진로 상담, 전공수업 엿보기



금천구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지원 프로그램 '별 따는 캠퍼스'를 진행한다.

'별 따는 캠퍼스'는 금천구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만든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의성, 융복합 사고, 리더십 등 탈 교과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구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1학년 학생 53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서울대의 우수한 지식 콘텐츠를 배우고, 교수진과 재학생 멘토의 도움을 받아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 진로진학 설계 특강 △ 재학생 멘토들의 입시, 학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의 꿈 찾기' △ 캠퍼스 내 천문대 탐방 △ 학과(교육학, 수의학, 화학생물공학, 항공우주학)별 교수진 전공수업 엿보기 △ 캠퍼스 투어 등이다.

특히 올해 새로 개관한 캠퍼스 내 천체투영관 '관하 코스모스홀'에 방문해 우주과학 분야 강연을 듣고, 별자리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제5회 세계청소년합창대회 금상 등 3개 부문 수상

종교부문 금상, 일반합창부문 금상,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쾌거

서울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5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서 종교부문 금상, 일반합창부문 금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는 매년 여름 세계 각지의 소년소녀합창단이 제주 서귀포시에 모여 합창 경연과 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대회로, 올해는 국내 14팀과 국외 2팀 등 총 16팀이 종교부문, 민속부문, 일반합창부문에 나눠 경

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Cantar', '함께라는 이유' 등 7곡으로 경연에 참가했으며, 합창단원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여 종교부문 금상, 일반합창부문 금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3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2001년 창단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역 내 행사 및 축제와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해 성동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매주 2회의 꾸준한 정기연습을 통해

합창 실력을 기르고 있다.

황주연 지휘자는 "이번 대회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 열심히 지도에 따라주고 노력해준 우리 합창단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원우 성동구청장은 "전국 규모의 큰 합창경연대회에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얻어 무척 대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어린 음악가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음악과 공연을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등급' 달성...3년 연속

2023년 자치구평가 S등급 달성, 재정 인센티브 3,500만원 확보

서울 은평구는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추진 성과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가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 정책 등의 실적을 평가했다.

은평구는 자치구 평가지표 38개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아 3,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구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사회경제분야 우선 구매율 ▲혁신구매 목표 달성 실적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 ▲공공 취업 서비스 달성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지원 실적 ▲도로 명판 확충 ▲성별 영향 평가 정책

개선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3년 연속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은 국정 과제에 발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관악구, '고독사 예방협의체 구성'으로 안전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앞장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민관 유관기관 주요인사로 구성

관악구가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관악구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안전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 고독사 예방협의체는 총 23명으로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민관 유관기관의 주요 인사로

구성됐다.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했던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관악구 고독사 예방사업 현황 보고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유로운 정책 건의와 토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고독사 예방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참여 의

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모니터에 이웃에 대한 관심 유도와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홍보영상 송출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구기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은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

구 발굴에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인구,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라며, "협의체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관악구의 특성이 반영된 '관악형 고독사 예방사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2023. 8. 8. (화) ~ 8. 11. (금)

제4회 섬의 날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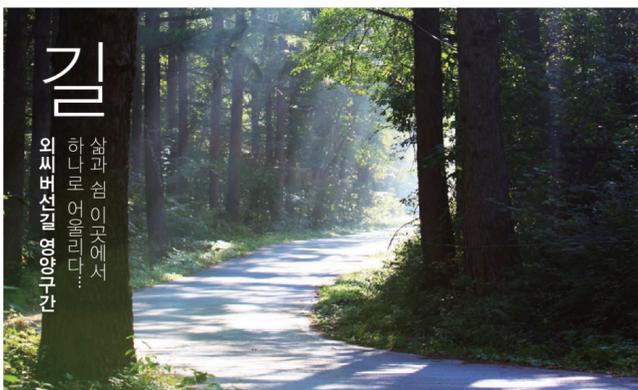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섯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름다듬어진다...
영양기원정원계곡나들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면...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몬학의 대가
서문포정원서원의 정경...
영양서지



맛

사백년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었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